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0. 16.(목)

김윤덕 장관, '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'

- 중국 베이징 WICV 개막식 참석, 정부 주요인사와 만나 정책방향 논의
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(목)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'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(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, 이하 WICV)'에 참석하였다.
 - WICV는 자율주행,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,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,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(UNECE),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(ACEA), 글로벌 완성차 업체, ICT 기업, 학계·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다.
-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(李乐成, Li Lecheng)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.
 -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%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, 커넥티드카,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.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, 교통환경을 갖춘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(Edge Case)을 학습할 수 있도록 1,500여대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.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실증환경, 운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.

- 김 장관은 “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자율주행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”면서, “우리나라는 아직 미·중 대비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낮아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- “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외 선진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임채현 (044-201-4146)
			주무관	윤형우 (044-201-4145)
				황지민 (044-201-3854)